



5월12일
수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정희	팀장	박상미	☎	286-6320
----	--------	----	-----	----	-----	---	----------

전남도, 친환경농업 선도 '2021년 유기농 명인 모집'

- 6월 11일까지 시군에 신청, 과수·채소 등 5개분야 -

전남도는 독특한 친환경 선도 기술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 확산에 앞장선 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모집에 나섰다.

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농법으로 5년 이상 유기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이다.

분야는 벼를 제외한 과수, 채소, 밭작물, 축산, 기타 등 5개 분야이며, 신청은 시군 친환경농업 부서에 6월 11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지실사를 거쳐, 유기농업 경력을 비롯 독창적 농법개발, 농자재 개발, 기술보급 실적, 브랜드 개발, 수상내역, 유기농 인증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명인에게는 '유기농 명인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명인이 운영하는 농장에는 안내판을 설치 지원하며, 생산제품에는 전남도에서 개발한 유기농명인 브랜드 '명인드림'을 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 홍보를 위한 제품전시,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유기농명인 교육과정 출강, 해외 우수사례 연수제공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이정희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명인은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도는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헌신하고 명망있는 농업인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유기농 명인 제품도 소비·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부터 명인을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22명의 유기농명인이 지정돼 활동 중이다. 지정된 유기농명인들은 전남 친환경농산물 홍보활동과 정책자문에 참여하며, 유기농명인 기술전수와 책자발간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 사진자료 별첨